

# “트렌드 제품·맞춤형 서비스로 집안을 봄처럼 화사하게 꾸미세요”

중동의 전쟁 사태로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요즘이다. 두바이 등으로 행복한 신혼여행이나 가족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도 ‘멘붕’이다. 그래도 봄은 왔다. 가구, 전자재, 생활가전 회사들은 새로운 인테리어 트렌드나 1인 가구와 같은 시대 상황에 맞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들로 소비자들을 손짓하고 있다.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려는 고객들을 위한 기업들의 여러 이벤트도 눈에 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유토이미지

## 2중 쿠션 구조... ‘미끄럼 저항성능’ 강화

### LX하우시스

#### 엑스컴포트 5.0

보행감 편안... 반려동물 제품·환경표지 인증

LX하우시스가 결혼, 이사 등 봄 성수기를 맞아 트렌디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대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LX Z:IN(LX지인) 바닥재 엑스컴포트 5.0’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LX Z:IN 바닥재 엑스컴포트 5.0’은 단일 쿠션층 구조의 기존 시트 바닥재와는 다르게 충격을 흡수하는 상부층과 탄력 있는 하부층으로 구성된 2중 쿠션구조로 되어 있어 다른 바닥재보다 편안한 보행감을 제공한다.

2중 쿠션구조인 만큼 청소기 소음이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 소음과 가벼운 물건 등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경량충격을 줄여준다.

특히, 특수 표면처리 기술을 적용해 ‘미끄럼 저항성능’을 강화했으며 사람은 물론 반려동물까지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다. 반려견의 미끄럼 안전성 테스트 결과 ‘엑스컴포트 5.0’의 미끄럼 저항성능은 기존 자사 감마루 대비 약 30% 우수하다.

‘반려동물 제품 인증’도 획득했다. PS인증은 한국에코협회와 KOTITI시험연구원에서 지정



LX지인 바닥재 ‘엑스컴포트 5.0’.

/LX하우시스

한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인증이다. 제조과정에서 지구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 감소 등을 사유로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했다.

‘엑스컴포트 5.0’은 입체감을 살린 고급 대리석 디자인과 질감을 그대로 살린 ‘스톤’ 패턴 9종, 섬세한 나뭇결과 선명한 컬러로 원목이 주는 감성을 그대로 구현한 ‘우드’ 패턴 6종 등 총 15종으로 구성됐다.

## ‘AMT 실드’ 코팅... 스크래치·곰팡이 억제

### 현대L&C

#### 아르톤

하이드로프루프 코어 공법 적용... 강력 방수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 전자재 기업 현대L&C가 고강도 주거용 바닥재 ‘아르톤(Artone)’으로 인테리어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섰다. 아르톤은 천연석과 고분자 수지를 고온·고압으로 압축해 만든 바닥재로 내구성과 내수성이 뛰어나다.

특히 아르톤은 현대L&C의 ‘하이드로프루프 코어(Hydroproof Core)’ 공법을 적용해 강력한 방수 기능을 갖췄다. 습기로 인한 뒤튕림과 변형이 적기 때문에 물 사용이 잦거나 청소가 잦은 환경에서도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다.

표면 내구성과 위생 성능도 한층 끌어올렸다. 일반 제품 대비 3배 수준인 두꺼운 표면 보호층에 현대L&C가 자체 개발한 ‘AMT 실드’ 특수 코팅까지 적용해 생활 스크래치와 마찰에 강해 깨끗이 유지할 수 있는 동시에 곰팡이 번식 억제 효과도 갖췄다.

디자인 측면에선 천연 석재의 질감을 선호하는 최근의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했다. 대리석 고유의 은은한 결을 묘사한 ‘베인(vein)’ 패턴 12종을 적용했다. 여기에 촉각적 굴곡을 입히는 입

체 엠보스 처리를 더해, 석재의 자연스러운 표면 질감과 깊이감을 구현했다.

라인업은 웜그레이와 베이지 컬러를 베이스로 따뜻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아테나’, ‘아이온’, ‘둔’과 무게감 있는 컬러의 ‘메티스’, ‘아레스’ 등으로 구성돼 공간 분위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 관계자는 “아르톤은 뛰어난 내구성과 방수 기능을 갖춰 주거 공간은 물론 보행량이 많은 상업 공간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며 “실제로 지난해 오픈한 현대L&C 신규 전시장 ‘스튜디오 H’에 개발중인 상품을 전시공했는데 수개월간 실사용하는데 있어 변형없이 깨끗이 유지되는 성능을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강도 주거용 바닥재 ‘아르톤’./현대L&C



더 클렌체 갤러리 내부에 조성한 시청각 미팅룸.

/KCC

## “이맥스 클럽’으로 스마트 견적 받아보세요”

### KCC

#### 창호 솔루션

견적 비교부터 시공까지 원스톱 진행

KCC가 창호 견적 비교부터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O2O플랫폼 ‘이맥스 클럽(E max Club) 홈페이지’를 통해 봄 인테리어 고객들을 손짓하고 있다. 이맥스 클럽은 KCC가 대리점의 창호 가공 기술과 사후 관리(A/S)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우수한 대리점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는 이맥스 클럽 대리점들이 참여해 ▲스마트 견적 시스템 ▲대리점 안내 ▲제품 정보 ▲시공 사례 등을 통합 제공해 창

호 구매 전 과정을 하나의 채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핵심 기능인 스마트 견적 시스템은 ‘역점매 방식’을 적용해 다양한 대리점의 견적을 한 번에 받아 볼 수 있다.

KCC는 또 하이엔드 브랜드 ‘클렌체’를 앞세워 창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클렌체는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적용이 확대되며 고성능 창호로 주목받고 있다. 단열과 기밀 성능은 물론 조망과 개방감까지 고려한 설계가 특징이다.

실제로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잠원노블레스’ 리모델링 현장 등에 적용됐으며, 신반포 2차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 바닥·벽·가구 하나로... ‘공간 통합’ 제안

### 동화기업

#### 아이코닉 스톤 컬렉션

통일감 있는 연출로 전체 디자인 완성도 제고

동화기업의 건재 브랜드 ‘동화자연마루’가 선보인 ‘아이코닉 스톤 컬렉션(Iconic Stone Collection)’은 석재 패턴을 기반으로 바닥과 벽, 가구 도어까지 같은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동화자연마루의 첫 번째 공간 통합 디자인 컬렉션이다.

아이코닉 스톤 컬렉션은 바닥재 ‘진 그란데’와 ‘진 그란데 스퀘어’, 벽재 ‘시그니얼’, 가구 도어재 ‘디하임’에 동일한 패턴을 적용할 수 있다. 여러 자재를 따로 선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톤 차이나 스타일 불일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공간 전체를 조화롭게 구성할 수 있다.

컬렉션은 총 7종 패턴으로 구성된다. 타일형 감마루 트렌드를 이끌어 온 기존 베스트 패

턴 ▲사하라 라이트 ▲이모션 블랑 ▲몬테 화이트 3종에 ▲슬레이트 모티프 ▲슬레이트 스틸 ▲포틀랜드 모티프 ▲포틀랜드 스틸 등 신규 패턴 4종이 추가됐다. 특히 새롭게 선보인 패턴은 고급스러운 유럽 천연석에서 영감을 받아 세련된 질감과 차분한 색감을 구현했다.

동일한 패턴과 톤을 바탕으로 바닥과 벽, 가구를 함께 구성하면 공간 전체의 디자인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다. 통일감 있는 연출은 물론 취향에 따라 자연스러운 믹스매치 인테리어도 가능하다. 특히 신규 패턴 4종은 동일한 톤을 유지하면서 패턴의 질감에 차이를 뒤 같은 색감 안에서 다양한 조합을 연출할 수 있다.

아이코닉 스톤 컬렉션이 적용된 제품은 모두 내구성이 뛰어난 코어 소재를 적용해 생활 스크



‘아이코닉 스톤 컬렉션’을 적용한 인테리어.

/동화기업

래치나 찌힘에 대한 걱정을 줄였다. 오랜 기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습기에 강한 내수성을 갖춰 변형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내오염성도 우수해 생활 오염 관리가 쉽다.